

혁명의 불보라

우리는 백두산불보라로 성장한 조선로동당의 축복받은 아들딸들이다.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을 한통에 안고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백승을 떨쳐내어 어머니당의 역사를 승려높이 추억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들에게 조여맨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10월의 환희로운 축포가 쏟아져내리고있다.

고난의 길에서 백두산불보라의 뜻을 피로써 세진 우리들은 위대한 새 승리를 기억해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터져오른 감격의 환호를 그대로 안고 당창건 65돐을 경축하여 터지는 축포를 보면서 주체위업완성의 한길로 우리를 떠밀어주는 혁명의 불보라에 대한 새로운 뜻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혁명의 피어린 추억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의 눈보라는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우리가 강성대국집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마치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저 하늘의 불보라는 최철찬을 돌라하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보람찬 투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감격의 환희성으로 달아오른 10월의 하늘과 땅은 식을 줄 모른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영광들이 성경해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감을 드러낸 만세의 환호를 터지던 열병대의 발구름은 이 시각도 우리의 출근길과 함께 울려가고있다.

포신을 높이 올린 무적의 땅조들,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경주기재들과 로켓드들의 장엄한 행렬이 눈앞에서 흘러가고 무진막강한 군력의 새로운 화폭앞에서 폭풍처럼 터져나던 환호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는다.

최철찬조영예술의 눈부신 팔야를 펼친 김일성광장에서 수천수만이 한영이 되여 노래하고 춤추며 경축의 밤을 함께 보낼 때 저 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는 얼마나 뜨거운것을 말하고있었던가.

인민의 머리위에 눈부신 축포하늘을 펼쳐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향도의 땅을 우러러 천만군인이 터진 심장 의 웨침에 마음합치며 혁명의 불보라를 받아안은 북반은 세대의 기쁨을 역사에 기록한다.

1

승리자들에게 내려준 태양의 꽃보라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황홀한 축포였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쏟아져내리고있다.

축포가 오르던 하늘에 손을 대면 뜨거웠던 것이 그대로 있을것만 같다.

조선혁명의 심장부인 수도 평양에서부터 몽염도시 함흥을 이어 조국통일의 녀원이 옹축된 력사의 땅 개성에 이르는 조국의 곳곳에 민족의 슬기를 자랑하는 우리의 새 축포가 날아올랐다.

내 조국의 하늘을 가득채우며 깔없이 터져나온 수백수천수만의 축포탄들을, 장엄한 그 대이리들을 어찌 잊을수 없으랴. 피리소리를 내면서 회전하여 오르는 축포탄도 있었고 호수가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꽃들을 발라는데 그대로 머물렀던채 축포탄도 있었다.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조형예술의 극이었다.

하늘의 문을 광활 두드리는듯한 장엄한 축포탄의 한발한발마다가 걸어진 길에 대한 추억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담고있었다.

여러개나 되는 발동기의 추진으로 솟구쳐오르는 피리소리회전바퀴들은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우주에 오르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을 형성하고있었다.

대통령물우에서 미끄러지는 꽃배에 매달린 불꽃축포도 회전하였다. 최철찬들과의 노래들이 우리가 가고있는 번영의 만리를 보여주는 불꽃리 축포에 이어 그칠 줄 모르는 비날론폭포처럼 연방광포도 진보처럼였다.

신비처럼 천빛이어서 손을 대도 데치지 않는다는 수심m에 달하는 평방축포는 앞선 기술에 비하여 폭포의 길이를 훨씬 늘이는 기록을 세운 화려한 내용을 안고있었다.

무한대한 대지에 불의 분수를 펼쳐놓는 평방분수대는 또한 얼마나 화려하였던가.

부채형으로 방사되어 3종의 색효과를 나타내는 3층돛풍요관과 불꽃이서리꽃만 있는가 하면 이름만 들어도 절로 웃음나오는 반짝소리관과 황색짧은피리관도 있었다.

미술가들도 미치 기억할수 없는 변화무쌍한 물들을 하면서 터져나는 채색공물관과 채색파열관, 은색회전관도 있었다.

장악해졌던 하늘을 일시에 반짝거리는 빛으로 뒤덮어놓는 은빛, 옥빛반짝물탄들의 출현과 함께 《야, 멋있구나!》하는 환성이 동시에 터져나기도 했다.

넓고넓은 하늘을 불의 화원으로 만들어 놓는 꽃다발탄도 있었고 풍년날짜리관도 있었다. 대동강과수종합능력의 과일꽃바다를 눈앞에 펼쳐주는 축포탄도 있었다. 시골남비에서 쏟아지는 주제철을 형성한 공중축포관도 있었다.

은빛날관, 붉은반짝꽃관, 홍은변색향관, 해성소리관, 흥색풍요관, 심장형관, 금빛살색관, 흑적변색관, 호표리파열반짝관, 은색분수관... 전론가가

아니고서는 100여종에 달하는 축포의 이름들과 각양각색을 미치 다 기억할수조차 없을것이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아볼수록 우아하고 고상할뿐아니라 거기에 담긴 뜻이 또한 신명하게 안겨온다.

세계에 없는 조형예술화된 축포의 새 화폭에 눈을 젖어든다.

우주에 오른 우리 과학기술의 위력이 축포탄에 체현된 황홀경이었다.

우리 나라 축포개발자들의 상상력의 높이를 보여주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예술조형적화폭을 보면서 《우리 축포 멋있구나!》, 《제일이야! 최고야!》 하고 사람들마다 환호를 올렸다.

우리는 품속에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밤하늘에서 21세기 축포의 새 세계를 보았다.

전선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며 달려온 승리의 광장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경축의 선물을 받아안았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입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혁명의 보람과 희열은 축포처럼 아름답고 무한하다.

선군으로 지켜낸 하늘과 땅에, 유유히 흘러가는 아름다운 대동강에 새 축포탄들이 터져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고난의 눈보라속에 피어난 장자강의 불빛을 등대처럼 보이며 조국을 이끌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고동치던 혁명의 희열이란 바로 이런것이었다. 눈보라치는 대동강의 모닥불앞에서 신들에게를 조여매고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내다보신 행복의 만리만리 바로 이런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희발봉을 받아안고 위훈의 길을 떠나면서 이 나라 청춘들이 그러하듯 조국의 미래란 이런것이었고 위대한 그이께서 쥐어주신 강강의 화봉을 역세게 추켜들며 조선로동당이 확신한 번영하는 조국이란 바로 이런것이었다.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우리의 새 축포가 세계를 굽어보며 하늘높이 날아오를 때 우리의 심장은 그것을 말하했다.

고난을 이겨낸 승리는 이처럼 아름다웠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걸어진 혁명의 길은 이렇듯 환희로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대를 이어 자기 수령께 충직하며 주체혁명위업의 한걸음 걸어진 인민이 받아안은 축복은 이렇듯 뜨겁고 황홀하며 신성한 것이다.

이 세상에 경축의 밤을 보내는 나라와 민족이 없지만 우리처럼 당의 승리를 그렇게 멋있게 영예롭게 총화할수 있는 인민은 오직 우리 하나뿐임을 우리는 가장 긍지높이, 자랑높이 선언할수 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내 조국의 신성하고 깨끗한 하늘에 자기 손으로 만든 새 축포를 터치며 땅을 따라 걸어진 백전백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심장은든 바로 이것을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며 싸우던 승리자들에게는 경축의 권리가 있었다.

승리를 값지게 경축하는것은 자기가 이룩한 승리에 대한 최대의 정의이며 영웅들의 피와 땀이 새겨진 승리의 바를을 굳세게 이어갈 드높은 결심과 의지의 확증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창하신 혁명연극 《검출대위》가 말해주는것처럼 승리를 경축하는것은 단순한 명절놀이 가 아니다.

일제의 《경축대회》를 항일유격대의 경축대회로 전환시켜 자기의 승리를 만찬한 뒤에 파시한 불멸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혁명에서 승리와 경축은 떨어질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있음을 잘 알수 있는 것이다.

《최고사령관명령. 서울해방에 즈음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240문의 대포로 24발씩의 축포를 쏘겠.》, 《1951년 2월 8일 20시 서울과 평양에서 120문의 포로 20발씩 일제사격으로 폐포를 발사할것.》, 《1951년 8월 15일 20시 평양, 원산, 함흥에서 240문의 포로 각각 20발씩 폐포를 발사할것.》, 《1952년 8월 27일 21시 평양에서 124문의 포로 일제사격으로 각각 24발씩의 축포를 쏘겠.》

침략자 미제를 서산탄일의 운명에 처넣는 영웅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생동하게 말해주는 최고사령부의 축포발사명령문들, 한자한자 읽어볼수록 가슴뜨겁다.

승리자의 존엄높은 자격을 맺었이 시위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멸망의 나락으로 몰아간 위대한 령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전화의 나날만이 아니었다.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나날에도, 고난의 력사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하늘에서는 승리의 축포가 끝없이 날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 천만리,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천만리, 대를 이어 걸어진

혁명의 한길에서 우리에게는 축포와 함께 긍지높이 기억된 경축의 날들이 많다.

혁명이 진진하고 승리의 제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축포의 모습은 더 장엄하고 아름다워졌다.

뜻깊은 경축의 날들에 싸울린 축포는 많지만 장군복을 소리쳐낸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 감격의 환호성을 그대로 싣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여 싸울린 10월의 축포는 류달리 많은것을 들이켜보게 하였다.

승리를 녀념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결한 감정이다. 승리에 대한 자부나 큰 것만큼 자기가 이룩한 승리를 값높이 경축하고싶은 소원도 크다. 그것은 승리에 바친 피와땀과 넘으로 간직하는 함없이 고된 감정이었었다. 그래서 승리자는 축포를 쓰고 폐배자는 고배를 마신다고 말한다.

하늘에 위성을 날리면서 그 이름을 축포라고 지은 나라도 있는것처럼 축포에는 정의로운 위업의 승리를 바라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감정이 비친다.

아름다운 축포밑에 서고싶은것은 어느 인민이나 가지고있는 소중한 감정이지만 승리자라고 하여 누구나 자기의 하늘에 아름다운 축포를 싸울려는것이 아니다. 눈보라행군길을 걸었다고 하여 누구나 경축의 광장에서 승리의 축포를 볼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개선광장의 환희로운 만제가 있고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개선광장의 축포가 있으며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어 김일성광장의 장엄한 축포가 있는것이다.

어제날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할 때 경축의 축포를 맺듯이 싸울수 없었다. 선렬들의 명전에 아름다운 추억의 꽃송이를 놓을지언정 지구의 하늘에 승리자의 축포를 당당히 싸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불보라!

우리는 그 뜻을 사전에서 깨닫지 않았다.

가슴에 소년단배타이를 날리던 시절 용해군의 외장대원에서 쏟아지는 불보라를 보면서 창초의 희열에 가슴벅찼고 건설장의 용검꽃잎에 비치지는 조국의 새 거리를 보면서 가슴들먹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서자라면서 눈을 이끈 창초의 불보라에 것처럼 거대한 하늘에 응답고 스스로는 혁명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모느처럼 그렇듯 가슴부듯이 느끼고있는 때는 없었을 것이다.

하늘에도 민족의 력사가 비친다. 구슬은 봉선화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젖고 두단갈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에 젖던 어제날의 력사는 땅에만, 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웃을 열라, 너는 것 대답할 가슴에 대답을 주지 못하는가고 절규한 시인의 목소리는 진정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던 인민의 수년의 역사를 가슴처럼 말해주었다.

하늘에 닿은 분노의 웨침은 시에도 담기었고 노래에도 담기었다. 어떤 사람들도 보며 듣기위하고 어떤 사람들도 보며 서러워한다는 혁명가극 《꽃배는 처녀》의 노래는 참다운 수령의 품에 안기지 못한 인민의 슬픔의 역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말해주었는가. 구름에서 찰신 처량한 달빛을 보며 흥도아 주며 싸는 노래를 부르면서 축포라는 말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민이었다.

그렇다. 우리 조국의 하늘은 달라졌다. 민들레 꿈계 피는 고향의 언덕에서 하얀 연을 띄우면서 바라보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미지의 세계를 꿰뚫어보시며 내 나라의 위성이 솟구쳐오른 하늘이어서 자랑스러울뿐아니라 승리의 축포가 오르는 하늘이어서 또한 자랑스럽다.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내 나라의 하늘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축포를 싸올린 크나큰 기쁨이요.

축포는 우리의 장군님께로 달리는 민심과 친정의 화합이었다.

그것은 반민권의 유구한 력사가 통제로 일어서서 감격의 환호를 올릴 하늘의 이 거대한 사면을 안아오신 백두의 명왕이 인민이 삼가 드린 불의 꽃다발이었다.

그것은 우리 조국에 백전백승의 영광을 안아오신 민족의 영웅 김정일장군님께 력사가 삼가 드린 축하의 꽃다발이었다.

수수한 잠바웃차림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어버이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강행군업적에 삼가 드리는 내 나라 산천초목의 경의, 내 나라 푸른 하늘의 다함없는 경의였다.

2

혁명의 승리는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가르쳐준 불보라였다.

두는 불보라의 위대한 세계를 깨달았다. 선군의 푸른 하늘에 연을 띄우며 조국의 귀중한 승리를 노래하는 인민에게 강성대국 불보라를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속에서 불보라의 진정한 뜻을 처음으로 새기었다.

고난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땅을 따라 변함없이 승려해는 흥흥한 인민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포를 마련해 주신 그 사랑에 눈물짓으며 인민은 생각하였다.

어제날에는 축포를 보면서 승리가 어떻게 오는가를 알았다면 오늘의 새 축포를 보면서 피로써 쟁취하는 승리가 어떻게 영원한것으로 이어지는가를 토포히 알게 되었다.

혁명의 승리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10월의 축포는 바로 이것을 절실히 말해주었다.

조국의 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밑에서 걸어진 길을 뒤돌아보며 승리자의 맹세를 다져온 인민에게 21세기 축포의 새 세계를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어버이,

당창건 65돐을 맞으면서 우리 인민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적인 축포를 선물로 안겨주려는것이 나의 결심이라고 하시던 잊지 못할 그날 우리의 장군님께서 얼마나 생각도 많으셨던가.

현대적인 축포를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못하고있던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었다 그 리도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장군님,

우리가 지켜낸 푸른 하늘에 우리의 아름다운 축포를 싸올리려는 백두령장의 결단, 아무리 회한할수 없었던이 아닌 우리는 결코 아름다울수 없기에 반드시 우리의 축포를 만들어 남음이 보란듯이 조국의 하늘에 싸올리려는 백두의 자존심으로 뛰어넘치는 말씀이었다.

우리의 새 축포를 만들어내면 평양에서도 쓰고 지방들에서도 쓰자고,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값지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가 하는것을 인민들에게 보여 주자고 하시는데 그 말씀 받아안고 온 장내가 해쫄는 바다처럼 설레던 잊지 못할 력사의 추억이여,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말하는 정치가는 많을수 있다. 하지만 혁명의 그 승리가 누구에게 필요한것이였는가를 인민앞에 증명한 정치가는 많지 못하다. 승리를 위하여 돌격하자고 웨치면서 병사들을 이끌어온 《개신장군》이 자기만을 위한 군악을 울리고 축포를 싸올리는것을 보고서 슬픈 눈물을 흘린 아키가 력사의 페이지에 기록되어었다.

인민들에게 천가지, 만가지 행복을!

우리가 인민들에게 선물하려는 새 축포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있었다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참으로 절절하였다.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에게 그 남음이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새 축포를 만들어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은 혁명하는 라이한 무엇인가를 깨우쳐주신 심장의 고백이었다.

승리도 인민을 위하여, 축포도 인민을 위하여!

상상 못할 기적은 이 위대한 사상에 대한 애국으로부터 시작되었었다.

승리도 인민을 위하여, 축포도 인민을 위하여! 상상을 개척하는것은 사실상 령에서 시작하였이나 다음없었지만 남들은 상상 못할 비대한 목표를 1년 남짓한 기간에 해낸 력사의 기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축포에 담아주시길 믿는 밤, 이른 새벽에도 파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고 축포가 오르는 4월의 밤, 5월의 밤에도 평범한 인민들속에서, 로동계급속에서 함께 계시며 시험할사과정을 지도해주시는 해닐같은 그 모습,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신 정다운 그 모습이 축포개발의 길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사람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도 하늘에 닿는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새 축포의 종자를 안겨주시는 위대사로 미루어볼 수 한결을, 미지의 세계를 꿰뚫어보시며 천제성에 매혹되며 또 한결을, 최첨단축포기술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물이 되고 귀환파학자를 비범하게 때워주어 별결을, 천결을, 성공에로의 길은 이렇게 이어졌다.

건본에번 매달리지 말고 우리 식의 축포를 개발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세계적 수준에서 목표를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신 쓰거운 가르치신, 단조로운 효파가 아니라 회전운동, 라선운동, 직선운동을 비롯한 변화무쌍한 복합운동을 하는 축포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해줄 축포탄개발에서는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믿고 용기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스승을 따라 우리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축포개발자들을 수천 명이나 되는 결사의 실험을 거쳐 기이 성공하였다.

성공도 보통성공이 아니었다. 축포기술에서 앞선 나라들에서도 해결할수 없었던오이는 문제반별을 개프린 성공, -30°C이어서도 불발은 모르는 축포조종점화장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불발률 5~10%라는 수자에 중지부를 적은 영웅적위업이였다.

당과 수령께 충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어떤 엄혹한 조건에서도 오동작을 모르는 우리 식의 특수한 방사조종장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백두산을 닮은 세계제일의 축포를 조국의 하늘에 터친것이다.

초강도현지지도의 길에서 완성되어나오는 하나하나의 축포탄들과 조종성비들을 보아주시고 축포시험발사현장에 함께 계시며 끝까지 성공할수 있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 계시었기에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조국의 하늘에 우리의 새 축포가 터져올수

있었다.

송예진 도, 메, 미, 화, 숲, 라, 씨가 있어서 노래를 아무리 편곡해도 끝이 없던 것처럼 최첨단축포기술의 기초가 마련되었기때문에 착상했는데 따라 천가지건 만가지건 회한한 새 축포가 끝없이 쏟아져나오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눈물없이 어찌 외을수 있으랴.

천송이, 만송이의 꽃송이마냥 우리의 축포가 쏟아져내리는 조국의 하늘밑에서 천만군인이 춤추고 노래하며 백전백승의 어머니당을 노래할 때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을 생각하시었던가.

오늘의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 눈비를 다 맞으며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뜨거운 마음속대화를 나누시었던가.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경축의 불보라속에서 더욱더 그리워지는 수령님 생각으로 눈을 뜨르우신 장군님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듯 주제사상법의 봉화에서 쏟아져내리던 한편의 글밥이었다.

그러음의 목숨을 터치는 불꽃이었다. 미는물의 바다를 헤치고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의 평마루에 높이 올라실수록 크게 울리던 마음속의 메아리였다.

만강대오항집시립문을 나서신 그날부터 혁명의 길에서 하루의 휴식도 모르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혁명가로서의 보람,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찾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쌓이고쌓인 절절한 그리움이 그대로 불꽃이 되어 조국의 축포밑에 새겨져있었던가.

우리 수령님 것처럼 귀중히 여기신 주체철의 환성을 눈앞에 보실 때도 우리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의우신던 소원이었다.

16년만에 다시 쏟아지는 비날론손을 손에 드셨을 때에도 저도 모르게 뜨겁게 의위보셨었고 CNC마다가 펼쳐진 북방의 현강결을 걸으실 때에도 마음속에 그렇게 외워보셨었다.

인민을 위하여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올 사람이므로 한평생을 걸으신 수령님 모습이 축포의 불보라속에서 어려와 뜨겁게 위대한 마음의 고백이 주제사상법 봉화밑에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인민의 행복을 위한 바로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 장군님 맞으신 혁명의 눈비가 그대로 불보라로 내렸던가.

축포가, 쏟아져내리랴.

병사들을 찾아, 인민들을 찾아 우리 장군님 가시는 길마다 영원한 추억의 길동무처럼 끝없이 쏟아져내리랴.

세월이 저 멀리 흘러간 뒤 아름다운 우리의 축포를 보며 기쁨에 웃는 후대들에게 우리는 옛날처럼 들려주리랴.

인민에게 기쁨을 줄 우리의 축포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불멸의 명도를 전설처럼 전해가리랴.

그러고 우리는 말해주리랴.

우리의 축포는 세계를 향하여 나간다고 웨치며 새 축포개발에 한몸바친 영웅적위훈자들의 모습을, 성공과 실패의 자욱이 무수히 적혀진 사격장फल에서 평양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보고를 울리던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 모습을, 못뭇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후손들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주리랴.

3

혁명은 혁명의 승리를 추동하는 중대사이다.

우리의 축포는 승리를 경축하는것을 배일을 위한 혁명의 중대사로 보는 위대한 사상을 뿌리를 두었다.

뜻깊은 경축의 날 우리 조국의 하늘에서 장엄하게 터져오르는 축포를 보며, 경축의 광장에서 춤바다를 펼치는 인민의 긍지높은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승리를 만들고 사는 자각들의 인생을 들이켜본 의의인민들이 많다.

오늘날 지구우에서 벌어지는 축포생활을 보낸 실낱과 국경절을 축하하여 축포를 터치는 나라들도 있고 생일을 축하하여 여기저기에서 축포를 싸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황금민들의 자본주의세상에서 돈많은 사람들, 기업가들이 자기 용과라 안에서 축포를 쏘면서 향락을 누리는것이 보통현상이 되고있다.

축포를 만들어낸 오랜 력사에 대하여 말하는 나라도 있고 축포기술에 대하여 말하는 나라도 적지 않지만, 하늘에 축포를 싸올리는 나라는 많고 축포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도 우리처럼 그렇게 전인민적감정으로 자기의 축포를 소리높이, 멋있게 자랑하는 나라는 없다.

승리와 패배의 진가는 세월이 멀리 흘러갈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우리가 력사적인 당대표자와 당창건 65돐을 향하여 돌진하는 새 축포개발의 길에서 승공의 환호를 울리고있을 때 침략자들의 아성에서는 7.27을 폐배의 날로 인정하고 전국에 조기를 띄우는 비참한 광경이 벌어졌다.

아침은 어디서 먹고 점심은 어디서 먹으면서 《승전》하겠다고 떠들다자 참매를 당하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물결 그대로 침략자들은 오늘도 서산탄일의 운명을 써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침략의 눈수들은 분멸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전쟁의 불바다를 꿈꾸며 합동군사연

습의 질은 화약내를 풍기고있지만 우리는 강성대국의 아름다운 리상을 안고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승리의 축포성을 하늘높이 울리며 전진하고있다.

전쟁의 불장안에 정의의 축포로 맞받아 나가는 조선의 기상 장엄하다.

정의와 진리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략과 전쟁의 길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비추주는 탐조등처럼 10월의 축포는 침략의 아성에 통쾌한 정벌의 불보라를 내렸다.

축포는 단순한 불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화약도 아니며 폭풍을 거치는 번디불도 초발도 등불도 아니다.

해와 별이 빛나는 저 하늘에서 정의와 해로 축복을 내리고 위대한 창조와 승리에 영광의 불보라를 내려주는 조선의 축포는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을 귀중히 여기며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끝까지 확증해주고 미래에 두 떠밀어주는 혁명의 불보라이다.

혁명의 불보라!

장군님 안겨주신 행복의 불보라를 혁명의 불보라로 간직하는 우리의 심장은 하나로 고무된다.

행복은 고등학교도 쟁취하는것이다.

혁명은 목적이 있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품고우는데있는 유명한 지론으로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오신 위대한 인간 김일성장군님의 명도를 끝까지 총직하게 따라갈 천만군민의 맹세가 하늘땅에 폭풍처럼 울린다.

누보라와 불보라는 우리의 투쟁의 길동무, 승리의 길동무이다.

백두의 명왕께서 천만군민에게 안겨 주신 축복의 불보라는 백두의 불보라와 함께 우리의 투쟁을 걸출을 고무해주는 영원한 길동무이다.

그 어떤 폭풍속에서도 우리 신념 굳건히 다져주는 백두의 눈보라가 우리의 행군길을 떠밀고 해와 별 빛나는 혁명의 수뇌부를 따르는 한길에 행복과 번영이 있는 미래를 새겨주는 혁명의 불보라가 우리의 투쟁을 고무해주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못해낼 일이 없는 영원한 승리자였다.

승리의 축포밑에 함께 있는 천만군민이여,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고 장군님과 함께 내 나라의 이름답고 장엄한 축포를 보던 10월의 광장을 영원히 잊지 말자.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받아안은 크나큰 행운속에서 향도의 땅을 우러러 맹세의 협성 눈이 울리던 축포의 밤을 영원히 잊지 말자.

절해고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잊을수 없으리라.

내 나라의 하늘에 치달아오르던 희한한 축포, 폭포바다를 펼치던 장엄한 축포, 눈부신 별빛들을 쏟아내던 황홀한 축포를.

장군복을 받아안은 우리의 하늘에 축복의 꽃다발을 가득 채우던 위대한 승리의 축포를 이 세상 그 예대 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영원히 기억하라.

즐거이 깨고 우의 펼쳐도 인민행으로 달려가 해도 저 하늘의 축포도 인민의 기쁨을 위하여 쏟아져내려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간직하신 위대한 인간의 혁명세계를.

대지에 피어나는 천만꽃들도 인민을 위하여 향기풍자고 양자국의 물고기도 인민에게 피리처럼 그 그것을 혁명의 진핵미므로, 보람으로 여기시는 백두산장군의 희열의 세계를.

그 고풍 혁명하는 영광스러운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포를 뜨겁게 간직하라.

백두의 눈보라로 혁명을 알고 승리의 축포속에 미래를 내다보는 긍지높은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포를 아름답게 간직하라.

축포처럼 뜨겁게 혁명하고 축포처럼 아름답게 행성을 살고 축포처럼 황홀하게 미래를 가꾸라.

축포는 우리 심장과 이야기한다. 승리란 무엇인가, 우리의 앞날이란 무엇인가를 넘쳐넘친 불보라로 보여주며 우리 마음에 눈송이처럼 내려앉는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누구도 거역할수 없다

자주, 민주, 통일, 통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세기적숙원이며 그를 위한 피어린 투쟁은 역사에 길이 남는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남조선에서 10월이 일어난 민주항쟁은 외세와 《유신》독재의 군화발밑에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까지 무참히 짓밟힌데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결탁한 식민지주주의 파쇼통치밑에서는 자신들의 그 어떤 요구도 실현할수 없고 치욕과 고통밖에 강요당할것이 없는데를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죽음도 두려움없이 분연히 떨쳐일어나었다.

1979년 10월 16일 깃발린 학원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반《정부》시위투쟁에 걸기해나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지퍼올린 항쟁의 불길은 삼시에 마산, 서울, 대구, 광주, 진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타버렸다. 그 나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을 극복하고 항쟁의 거리에 떨치려와 《유신헌법》의 철폐와 독재《정권》의 퇴진, 언론과 학원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군부독재체제를 끝내내 파멸에 몰아넣은 항쟁참가자들의 합성소리는 오늘날도 거제의 귀전에 정성리 메아리치고있다.

10월민주항쟁은 제야무리 포악한 독재자라도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미국, 민족반역자들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차체진다 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진실한 투쟁으로만이 쟁취할수 있다. 이것은 31년 전 10월민주항쟁운동이 애국의 더운 피로 새긴 역사의 진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10월민주항쟁을

사들이 발휘하였던 불굴의 투지와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의 애국투쟁을 중도반담없이 없이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입니다.》

현시기는 겨레앞에 나선 민족지상의 과제는 조국통일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적법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고 겨레의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업이다. 우리 민족에게 분열을 강요한것은 외세이며 65년간에 걸쳐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는것은 외세이다. 외세의 끈질긴 분열책동때문에 우리 겨레는 전국적법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민족을 이토록 화복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60여년이 나 분열의 고통과 불행에 강요당하고 자주권과 존엄을 훼손당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지이다. 정성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민이 당하는 분열의 고통을 절대 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말마달 애국을 부르짖을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한몸 내어야 한다. 우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절대적으로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데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적으로 허는 6.15공동선언은 민주주의선언인 동시에 민족단합선언이며

10.4선언은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이 있다. 현실기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는 사람은 애국자이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방해하는자는 애국노이다. 6.15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비핵, 개방, 300》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떠벌리면서 반통일대결정책에 매달려 6.15공동선언이 결여된 북남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버린데 기인한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일도타도않은 구실로 민간단체들의 소소한 북남협력사업마저 가로막고 폭압수단을 총동원하여 통일애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보수파당이 북남선언을 부정하면서 반통일대결정책을 추구하면서 않았으며 북남관계가 지금 처럼 험악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적이지 않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대결적책상은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동포애국조직으로 마련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시외와 함께 대화분위기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행동을 끊임없이 강행해나서고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과 북침전쟁소식을 그대도 들들타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과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머리에 엄정한 재난이 들춰워질수 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보수파당의 좌초적탄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속에서도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당국의 반통일대결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파쇼독압도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절대 도 멈춰세울수도 가로막을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합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정권과 신앙, 주의 주장을 초월하여 서로 편파하고 단합하면서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해나선다면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책동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보수파당의 파쇼폭압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것을 단결의 힘으로 짓부셔버려야 한다. 북남선언들에 기초하여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더없이 정당하다. 온 겨레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신념으로 선택한 통일애국의 기치를 절대로 내리우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될것이다.

대화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

지난 13일부터 남조선호전파들은 2일간에 걸쳐 부산야마다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호선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여기에는 괴뢰해군의 함정들과 해상초계기, 해상정찰기의 신박순신특공대를 포함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방대한 병력이 동원되었다. 괴뢰해군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끄고 걸고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호선을 벌려놓은 것은 북남선언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북남관계를 전쟁정계로 몰아가려는 대결광신자들의 범죄적책동에 드러난 망동으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도발이며 로골적인 선전고교이다. 북로련과 같이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라는것은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비롯한 대향상상무기의 진과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저들이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는 나라들의 신박이대 비행기 등을 강제로 단속, 검문, 검색할 범죄적기도로부터 조작해내고 주도해온 위험한 도구이다. 그 침략성과 불법성, 지역정세에 미치기 쥔 엄중한 파국적후과로 하여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은 시종일관 우리 겨레와 세계정세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에 환장이 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에 합세하여 선인자들도 주저없이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가담해나갔다. 그것으로선 상처지 않아 이미 모략적선장이 명백히 드러난 《천안》호사건을 집요하게 걸고 늘어지던 이번 호선을 남조선주변해역에서 벌리는 위험천만한 망동을 부렸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사상 처음으로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호선을 남조선당국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이었다. 호선내용도 《특정나라 선박

에 대한 강제적인 검문, 검색》을 목적으로 한 해상봉쇄훈련이다.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불수 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스쳐지나갈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박들에 대한 강제적억류, 검문, 검색과 함께 항만봉쇄를 노린 또 하나의 전쟁연습수단으로 대당해나온다. 그것은 괴뢰들이 주도하고 거기에 호시탐탐 제질의 칼을 버리고있는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이었다는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광기가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 주었다. 지금 북과 남에 필요한것은 총포소동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의 분위기이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정의로운 노력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은 협상마당에는 나오지 않고 쫓겨나서 대화의 발을 겨냥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수동으로 대당해나온다. 그 목적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대결을 조성, 격화시키자는데 있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태는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리지 않았고있는것이 과연 누구때문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호선과 같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강탈하고 침해하는 불법비도적인 적대행위를 가저올것이지만 군사적총동과 북남관계의 악화뿐이다. 북남관계의 파괴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남조선당국에도 리로울것이 없다. 북남관계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의 전도와 관련된중대사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시대적호름과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줄달음치한다면 역사와 민족은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호전파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린것과 관련하여 10월 1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6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호전파들이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광범화하고있다. 미국과 함께 조선통해와 서해, 남조선에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편이 벌려온 괴뢰들은 13일부터 14일까지 또 다시 부산야마다에서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이어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호선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괴뢰해군은 그에 앞서 워싱턴에 징행된 미국남조선전력관보회의에서의 핵무기를 포함한 각종 정밀타격무기들과 최신허정정비비들로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확장억제전쟁위원회》 신설과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구두채우는 《전략기획지침》을 모의하였다.

괴뢰들이 극히 도발적인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호선까지 남조선의 부산야마다에서 벌려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전면대결선포이며 북남관계를 전쟁정계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정의로운 노력에 의하여 적지않은 인민의 문제에 해결을 위한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흥이겨 가지, 친척상봉사업이 추진되고있는 때 남조선당국이 미국은 물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 첩략무력까지 끌어들이어 북침전쟁연습 불장난을 편일 강행하고 우리를 선제공격하려 하는 불온한 군사적도의를 벌리고있는것은 그들에게 대화도 북남관계도 평화도 인중이 없고 오직 동족대결과 북침야망만이 짝 들어지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괴뢰해군의 도발적인 전쟁소동은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자들의 단발마적발악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파당들이 무는 《급변사태》니, 《대비계획》이니 뭐니 하는것은 있

을수도 실현될수도 없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허망한 망상이며 계종이다. 백두의 천총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의 기치밑에 그 어떤 원수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최첨단의 무전박각한 전쟁억제력과 주체적법으로 무장한 우리 근대와 인민앞에서는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전자도 꺾달말 비위를 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보수파당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와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해 떠들기전에 초상징이 된 계 집안일이나 돌아다니고 미국의 침략적인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책동부터 반대해나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평화를 바라는 친박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주저없이 맞받아나가 한눈도 남김없이 모조리 쏘아 버리고 침략자들의 이성을 송두리째 짓부셔버릴것이다. 남조선피괴호전파들은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호소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10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성명에서 온 겨레가 우리 민족의 기치를 지켜주고 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여 통일을 앞당길것을 호소하였다. 성명은 북조선 남측본부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는 올해에 조국통일3대헌장을 받도록 통일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온데 대해 밝혔다. 민족의 절박한 요구인 남북공동선언리행의 길을 가로막고 반통일전쟁만을 일삼는 리명박적적대결을 반드시 심판하고야말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받되주지, 사대매국적명행성, 남북관계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인도네시아정계인사 담화 발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체사회 총서기 리스미안토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1980년 10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시면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것은 조선인민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포함한 조국통일3대헌장이 정립되고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애국리념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확고한 담보와 조선통일의 리정조가 마련되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굳게 확신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번영의 원리와 조선훈도의 현실을 가

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조선 민족과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명박파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동족대결에 매달리면서 반통일책동을 계속 추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 민주주의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반공화국책동을 그만두고 조선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도발적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인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의 선공명도덕에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물 대규모 항공훈련에 광본

미제와 괴뢰호전광물들이 15일부터 조선반도 서부상공에서 실시한 대규모항공훈련에 광분하고있다. (F-15K), (KF-16), (F-4E) 전투기, (KC-135) 공중급유기, (C-130), (CN-235) 수송기들을 비롯한 방대한 공군무력기 이번 전쟁연습에 투입되었다.

전시대비실전훈련의 명목밑에 여여날 계속된 전쟁연습기간 호전광물들은 대규모공중편대를 무어 공중전, 타격포로에 대한 전술적훈련 등을 벌리고있다. 특히 (F-16) 전투폭격기들이 미국본토에서 출격하여 조선반도에 날아들어 전쟁연습에 들어치게 된다.

부산야마다에서 극히 도발적인 《대향상상무기확산방지구상》 관련 해상자단, 집권연습을 강행한데 편이여 또 다시 하늘에서 위협천한 북침전쟁행동을 벌려놓은 미제와 리명박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정계로 몰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제가 20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행위유형을 끊임없이 강행해 온 사실들이 최근 미중양보국시 공개한 조선전쟁관련 문헌들과 미국의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유출된천한 북침전쟁행동을 벌려놓은 미제와 리명박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정계로 몰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진실을 숨기려는 부당한 처사

남조선신문 《한겨레》 12일부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강행된 민간인학살행위의 진상을 숨기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위원회)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실은 과거사위원회가 6.25전쟁시기 민간인학살민행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사관을 해

임한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사관이 공개한 문서는 1951년 거창, 함양, 산청지역에서의 민간인학살행위들이 군부의 작전리행에 따라 강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최초의 군내부 문서라고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은 과거사위원회가 50년이상 비밀로 되어있던 문서

를 2007년에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 내용을 문물을 통해 밝혔다 하여 조사관을 해임하였다는 진실의 공개를 두려워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과거사위원회활동보고서 배포가 중단되고 여러건의 민간인집단학살민행사건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해온 미국의 죄악 전쟁이 끝난 직후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조선과 중국에 핵폭탄을 대량투하할데 대한 내용이 담긴 극비작전계획 《8-53》을 공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 또한 미공군은 원자탄투하능력을 갖춘 (F-84G) 폭격기를 남조선에 두 많이 배치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미제는 일본 오키나와에 조선전쟁때 써먹을 각종 핵탄두들을 배비하여왔는데 그 수가 1967년까지만 하여도 모두 2600개에 달하였다. 특히 1960년대 미제는 핵폭탄을 탑재한 남조선간첩 미공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해온 미국의 죄악

군기들이 15분위로 우리 공화국을 타격할수 있게 비상출격대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미군사령관이 핵무기의 남조선투하를 공식 인정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미국 방장관들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설명하며 《모든 선택을 탁상우에 올려놓았다.》고 격렬함으로 핵공격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였다. 저만 사실은 미제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책동해왔음을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쟁이 끝난 직후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조선과 중국에 핵폭탄을 대량투하할데 대한 내용이 담긴 극비작전계획 《8-53》을 공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 또한 미공군은 원자탄투하능력을 갖춘 (F-84G) 폭격기를 남조선에 두 많이 배치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미제는 일본 오키나와에 조선전쟁때 써먹을 각종 핵탄두들을 배비하여왔는데 그 수가 1967년까지만 하여도 모두 2600개에 달하였다. 특히 1960년대 미제는 핵폭탄을 탑재한 남조선간첩 미공

《협정》체결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한미자유무역협정》(범 국민운동본부)가 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생파탄을 불러올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경문이 팽독되었다. 최경문은 리명박 《정부》가 그 무슨 《경제평도화장》을 운운하며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것은 물론 필약한 남조선정세를 더욱 위기로 내몰는 행위라고 최경문은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

최근 남조선 각계 층속에서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철폐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속엔 민주당, 민주주의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도 이에 합세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여론조사자 개행되었다.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제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민족의 절대다수가 잘못되었다 지적하고있다. 그와 더불어 《정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남관

계의 회복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당도당도 론평을 발표하여 현 《정부》가 외세와의 전쟁정동이 아니라 민족공조를 내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길만이 민족을 살리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똑똑히 알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당국이 반공화국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잇을수 없는 좌악을 몇몇개 쟁점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런 속애 얼마전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새 지도부가 수립되었다.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손학규는 당국이 북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체제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보다 앞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당국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당의 의원은 《천안》호사건이후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어 북에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있다 하면서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 의원은 현 《정권》이 남북협력사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연료들은 민주당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주목하면서 야당세력과 각계 층속이 일치하게 당국의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현 사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심문을 최근 북남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해방을 놓기 위해 반일자가 나 하고있는 세력에 대해 폭로하고있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담가가지 않는 대결광신자들의 책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보수언론은 외교안보관계 장관일명문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반동보수세력

를 거들면서 《원칙고수론자의 배개》 위협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로골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주적》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국무보수분자들은 모략적선장이 날앞이 드러난 《천안》호사건을 또 다시 거들면서 올해 《국방백서》를 들들 《주적》으로 조작하여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자기 동족을 괴를 나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주적》으로 하더라도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실시한다면 그 원인이 있다. 《한나라당》이 결친 《주적》소동은 명백히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상태에 몰락이두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다. 더구나 그들이 우리의 《주적》으로 명기하기 위해 구실로 삼고있는

높고있다. 이렇게 되자 대결이 명출을 끌고있는 《한나라당》의 악질보수분자들은 그들도 당황망조해하고있다. 그들은 또 다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높아가는 동족사이의 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개선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한나라당》페거리들의 망동에 대해 《아부 근지도 당도(무분별한 대북지원)》을 운운하며 북을 끌고드는것은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려는 노골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 한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까지 비난해나섰었다. 《한나라당》의 국무보수분자들에게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나가도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 파탄시킬 흉심밖에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은 미제침략군과 함께 우력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수동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는것도 로골적인 북남관계악화책동이다. 남조선호전광물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합동

군사운동을 편이 벌광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진장상태에 처하였다. 그렇듯 도발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이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되고있는 때에 편이 강행되고있는것이 북남관계개선을 파탄시키려는 계획적이며 괴뢰적인 도발행위라는것은 불보되 명백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남조선호전세력은 북남관계가 전진할 때마다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운동을 요란하게 벌려 그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편들이 머 리속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보수파당이 《자유무역협정》을 요란하게 벌려 그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편들이 머 리속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보수파당이 《자유무역협정》을 요란하게 벌려 그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편들이 머 리속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보수파당이 《자유무역협정》을 요란하게 벌려 그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편들이 머 리속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보수파당이 《자유무역협정》을 요란하게 벌려 그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편들이 머 리속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보수파당이 《자유무역협정》을 요란하게 벌려 그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

조종친선의 년대기에 수놓아진 숭고한 의리와 사랑의 서사시

혁명의 폭풍우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즐기게 하는 것은 전통적인 조종친선의 역사!

조종친선은 근 한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생애의 자유자학을 극적과 민족의 한계를 초월한 열화같은 인간애와 혁명적도덕의리로 수놓아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때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가장 친근한 벗이요 오랜 혁명전우라고 하시며 혁명적우의와 사랑을 부여하신 중국의 항일혁명군지휘관인 조종친선은 조종친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심금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 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주보종과의 첫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1930년대 초엽 동남방에서였다. 일찌기 15살에 손에 무기를 잡고 혁명투쟁을 해온 주보종은 1932년 중국공산당의 임시로 만주성위 군사위원회의 서기로 임명되었다. 그후 수령님일동맹을 조직하고 동맹공판사처 주임, 군사위원회 주적으로 사립대학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그때 문밖에까지 나가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주보종동지입니다가, 오시니라고 수고의 감사를 받으시라 하시니 그날 저녁 그를 친히 데리러 마중해주셨다. 그후 우리로 인하여 영웅적도는 눈매, 찡뿔뿔 울리는 수령님의 음성엔 첫 순간에 주보종의 운명을 송두리째 휘어잡는 듯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주보종은 그의 두손을 부여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사실 생명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께 충성이 사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고 마음먹고 달려온 그였다. 몇달 전이었다. 국제공산당의 위임을 받고 중국 공산당의 부대에서 공작하고 있던 주보종은 명안현에서 백주에 양덕림의 휘하에 있던 자위군(반일부대의 일종) 투쟁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위군사령관 공산주의자들의 합작을 피하려고 위해 일제가 퍼뜨린 헛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죽음의 문이여 들

어었던 그를 구원하신분은 다음이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왕덕림에게 편지를 보내시어 제때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었다. 후날 주보종은 우리 수령님의 첫 상봉을 회고할 때마다 대대같은 은혜에 한탄더 사대조차 드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곤 하였다 한다.

주보종을 매혹시킨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만이 아니었다. 그날 수령님과 주보종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 기본은 이론적인 항일전쟁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조종 두 나라 유격부대의 협동투쟁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 수령님의 판단과 해석은 오래동안 항일혁명을 해왔다고 자부해온 주보종을 무색케 할 정도로 정확하였고 항일대업을 이룩하시려는 그의 뜻은 매우 높은 경지에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대업을 승리로 이끄시니 일제가 만주와 조선에서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것이고 조선의 독립은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될것이라는 확신이 자라잡았다. 또한 그런 위인을 통수로 모신것은 조선혁명을 위해서뿐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 특히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유격부대투쟁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라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정말 위대한 수령님의 이날의 뜻 깊은 상봉은 주보종에게 있어서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흥미의 출발점이었다. 항일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이렇게 맺어진 우리 수령님과 주보종사이의 동지적관계는 그후 수십년세월 항일, 항미의 불길속에 서 굳건히 다져져 조종친선의 거목울 자재우는 한갈래의 뿌리로 되었다.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항일전사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우리 수령님께서 단행하신 두차례의 북만원정, 참으로 여기에는 조연된 우측에서 조종혁명가들사이의 진투적투쟁과 우의를 굳건히 하신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력사가 뜨겁게 비껴있다.

1930년대중엽 중국인민반일투쟁 문제로 주보종은 골머리를 앓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농후할뿐 아니라 항일유격군을 부르짖으면서도 일제침략자들과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있는 냉안현일대의 크고작은 반일부대들을 묶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중대한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라자주전투에서 박석로탄에 맞은 상처지리에 화승기름이 섞여 지렁이에 의지하여 힘겨운 고생을 겪고있는 중국동지들이 찾아와 고뇌하는 모든 문제들을 즉시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있고 항일운동을 써서 연락원을 띄워보내게 되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수령님께서 곁을 돌며 우를 위로하신 동민의 유격군 지휘들이 일제의 《토벌》작전과 좌경배타주의자들의 반 《민생단》 투쟁바람에 안락하고 위험을 뚫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어려움을 겪는 북만혁명을 도와주기 위해 로 야령의 장성을 헤쳐보러 북한으로 찾아갔다. 가장 어려운 때 사신을 데리고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는 순간 주보종은 끝없는 고마움과 격정이 북받쳐 그야말로 부둥켜안고 활짝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러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다라사쳐부러지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구해오신 교양도 품소 발라주시고 배대도 같이 주시었다. 그의 상처가 많이 나아지자 수령님께서는 한에 맞게 지령이도 만들어 주시고 인적자를 부추여서 걸음걸음까지 시키시었다. 그후 수령님께서서는 축한으로 쇠약해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의 몸보신을 위하여 일부러 톤원현을 파견하여 풀에 재운 보양까지 보내주시었다.

천월옥의 사랑일뎌 어찌 이보다 더 다심하고 응심깊을 수 있겠는가. 이때

부러 중국동북지방에서는 《어려운 때 찾아온 진정한 벗》이라는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어찌 그뿐이라. 북만의 실화와 폭양 속에서 주보종과 더욱 두터워진 우리 수령님의 동지적우의와 고결한 세계는 항일의 최후결전을 준비하던 나날을 거쳐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시기에도 끊임없이 펼쳐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정국무력건설로 한정된 무기, 1여의 전략도 귀했었지만 국내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국동지들이 찾아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즉시에서 해결해주시었으며 1946년 봄에 10만여명의 무기를 보내주신것을 잊지않고있다. 하기에 주보종은 동북해방전쟁에 돌리던 김일성장군님을 우선으로 한 수령님의 사심없는 국제주의적지원에 대하여 중국인민적 투쟁바람에 안락하고 위험을 뚫고 있었다.

이것은 혁명의 불길속에서 피와 살을 나누며 절세이론의 숭고한 동지에와 혁명적의를 체현한 그의 심장의 고백이었다. 병치로 받고있는 주보종을 만나시려고 중국방문의 귀중한 시간도 아낌없이 바치시며 가슴 한가득 사랑을 부여하시던 우리 수령님, 오랜 병환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온종일 침투실을 거니시며 주보종을 파독하고 무뎉숙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지만 인정이 있고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덕은 덕으로 갖고 정에는 정으로 대담할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뜨겁게 회억하신 수령님께서는 한에 맞게 지령이도 만들어 주시고 품소 조전을 보내주시고 중국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 일꾼들이 그의 집에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시하도록 하시었다. 주보종의 부인과 자식들에게 배려해주신 백두산고대장군의 사랑은 또 얼마나 자애깊고 뜨거웠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보종의

일가를 어버이수령님 서저 3책 추모 행사에도 불러주시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해주셨다.

우리 인민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있어는 중국의 항일혁명투쟁선 고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친히 그들을 불러주시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리의 발현이며 우리 수령님의 옛 전우들이나 후손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배부신 또 하나의 특전이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감격에 목이 매여 축원하는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한 주보종일가에게 연회도 마련해주시고 몸소 참석관정도 짜주시며 방방기간 즐겁고 유쾌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옛 전우들과 그 후손들을 돌보시는 자신의 의 무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세겜을 때처럼 오고싶을 때 불러오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진정한 국경을 모르는 위대한 그 사랑과 의리에 주보종일가는 감동에 울고 기쁨에 말하였다.

연제인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보종일가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주보종이 자기 가장 믿고 아꼈던 부인과 온전수를 떠돌이 보내시어 어버이수령님께 올린 편지의 구절구절을 회고하시면서 두 나라사이 판계를 놓고 볼 때 조종 두 나라사이 판계를 세고 모든 나라들의 진형으로 되고 가정들사이 판계를 놓고보아도 주보종일가의 판계를 진형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맺어져 나날이 깊어진 절세의 위인들과 주보종일가사이의 오고간 뜨거운 정과 혁명적도덕의리는 조종친선의 력사를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중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

위대한 태양의 거대한 빛과 열로 세월을 날고 새를 이으면서 날로 더더욱 만발하는 불멸의 조종친선의 양광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배금희

영국, 나이지리아단체 성명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조소자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로동당은 창건 65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김정일영도자께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드린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의하여 창건된 후 지난 65년간 가장 신속하고 혁명적인 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의 세련된 령도 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해왔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이며 김정일영도자의 혁명활동력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영도자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속해나가고있다.

우리들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것을衷心으로 축원한다.

김정일영도자의 선군영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영국순군정치연구회와 영국주제사상연구조소자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로동당은 창건 65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 대명 추복위기에 휩싸여있다.

1945년 10월 10일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력사적부리를 두셨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년초석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오의 사상의적정도와 새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였다.

성명은 우리 당이 지난 65성상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는데 하여 앞집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미제와 국제반동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에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의 보루로 전변되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날마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영국에 있는 주체사상, 선군 사상신봉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리고 65년간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본사기자

혁명적당건설이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당

《비핵3원칙》은 빛좋은 개살구

최근 일본이 1960년대에 핵무기보유를 극비밀리에 검토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가 밝혀졌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1964년에 《연제》를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연제》는 핵무기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하였다고 한다. 보고서는 1964년에 일본내각조사실이 국제정치학자로서 후날 오기나와한관외교에 관여한 와카이시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일본이 핵이나 로켓의 기술개발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있다.

한편 최근 입수된 도이힐란드의무성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1969년 2월 당시 일본외무성은 국제자보부장 등 6명이 참가한 서부도이힐란드와 쿠비협상과정에 일본의 기술이 핵무기원료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서부도이힐란드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 쿠비협상이 참가했던 일본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올해 3월 일본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비밀협상의 목적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조성하여 대국들이 만든 비핵국가들의 핵무기개발예약을 조건을 뒤집는 데 있었다고 시사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오래전부터 핵무기화와 제정야망 실현을 추구하여왔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폭로해주는 력사적증거이다.

일본반동들은 핵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내외에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문구까지 쓰여있다. 보고서에는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도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하는것이》 일본

의 국제적지위를 높인다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되어있다 한다.

쿠비협상공포에 일본에서 일대 소동이 일고있다. 지금까지 핵문제에서 《형편》한데 하며 너스레를 떨던 일본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공개되자 몹시 비바하며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일본내각방관장관은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실여부를 위무성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이 《조사》했음을 열변만 늘어놓는 것은 얼지른 말을 주어 담이보았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핵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가 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엔 공개된 핵문서들은 전후 일본의 핵무기개발계획이 벌써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핵무기개발자들은 오늘날에 와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든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처럼 앞에서는 《비핵3원칙》을 제창하면서 뒤엔 핵무기보유를 시도했던 시기는 일본당국자가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선언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그 취위기간성을 더욱 명백히 입증해주고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핵3원칙》의 면사포를 쓰고 《평화국가》, 《비핵국가》를 행세하여왔다. 앞에서는 《비핵3원칙》을 공표할 때 위대하면서 뒤엔 들어있지 않는 핵무기보유를 피워올리기 위해 음모로양양도 모지름을 쓴 일본정권자들을 정지간상배로뒤에 달리 부를수 있겠는가. 정치를 한갖 아이들장난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격의 《비핵3원칙》을 어떻게 국책으로 광고할수 있겠는가.

일본은 전법적으로 전후 법적으로 그 어떤 전무무죄도 가질수 없고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행사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과거 일제의 패망의 원인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였었다는 막대한 후회와 부수성에 불과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일본의 《비핵3원칙》은 저들의 음흉한 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로 일본반동들은 《비핵3원칙》의 병풍뒤에서 핵무기개발계획을 다그쳐왔다. 일본당국자들조차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엔 공개된 핵문서들은 전후 일본의 핵무기개발계획이 벌써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핵무기개발자들은 오늘날에 와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든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처럼 앞에서는 《비핵3원칙》을 제창하면서 뒤엔 핵무기보유를 시도했던 시기는 일본당국자가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선언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그 취위기간성을 더욱 명백히 입증해주고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핵3원칙》의 면사포를 쓰고 《평화국가》, 《비핵국가》를 행세하여왔다. 앞에서는 《비핵3원칙》을 공표할 때 위대하면서 뒤엔 들어있지 않는 핵무기보유를 피워올리기 위해 음모로양양도 모지름을 쓴 일본정권자들을 정지간상배로뒤에 달리 부를수 있겠는가. 정치를 한갖 아이들장난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빛

단결하여 굶주림을 타게 하라.

이것은 올해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설정한 주제이다.

식량위기는 현시기 인류가 직면한 중대위기중의 하나이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있으며 6조명 1명의 어린이가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일본의 《비핵3원칙》은 저들의 음흉한 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로 일본반동들은 《비핵3원칙》의 병풍뒤에서 핵무기개발계획을 다그쳐왔다. 일본당국자들조차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엔 공개된 핵문서들은 전후 일본의 핵무기개발계획이 벌써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핵무기개발자들은 오늘날에 와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든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처럼 앞에서는 《비핵3원칙》을 제창하면서 뒤엔 핵무기보유를 시도했던 시기는 일본당국자가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선언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그 취위기간성을 더욱 명백히 입증해주고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핵3원칙》의 면사포를 쓰고 《평화국가》, 《비핵국가》를 행세하여왔다. 앞에서는 《비핵3원칙》을 공표할 때 위대하면서 뒤엔 들어있지 않는 핵무기보유를 피워올리기 위해 음모로양양도 모지름을 쓴 일본정권자들을 정지간상배로뒤에 달리 부를수 있겠는가. 정치를 한갖 아이들장난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빛

국제적협조를 요구하는 식량위기

40년동안에 세계농경지의 약 3분의 1이 토지사막화로 황폐화되었다. 토지의 사막화현상으로 1990년대 초에 해마다 약 600만ha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어 농업생산이 계속 감소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목축사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축 사육량도 증가하고있다. 가축 사육량 증가로 인해 농가적인 인양이 무시할수 없는 작용을 하고있고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그러하다.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바와 같이 지구환경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은 인류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대량적으로 방출되는 온실효과가스에 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과 가자호스만에서도 가물과 많은 알곡을 손실당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캐나다에서는 큰물피해로 알곡수확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존상승도 알곡 생산을 저해하는데 냉동건조가 0.5% 늘어지면 알곡 생산량이 3~5% 감소된다고 한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세

계적인 알곡생산에 커다란 장애를 주고있다.

최근간장 사방나라들이 추진하고있는 알곡에 의한 생물연료 생산 역시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촉진시키는 근원인 하나이다. 강행이생산선에서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강행이수확량의 적지 않은 몫을 생물연료 생산에 리용하고있다. 생물연료 생산을 위한 알곡의 대량적인 소비는 생물연료생물연료에 면적을 늘리는 한편 식량가격 폭등을 초래하고있다. 이것은 엄청난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사들이던 발전도상나라들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이밖에 대량 수확과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 알

여러 나라들 협조

우크라이나와 슬로벤스카에 앞서 5일 쿠바와 엘 6일 수리, 에르조프 등 분야 켈바드르에 보건, 교육, 문화에서 호상 협조관계를 확대할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3건 전시기기 위한 기구들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잠비끄에서 식량위기

모잠비끄에서 최근 식량위기가 심화되고있다.

6일 이 나라 정부는 쏘말라주의 켈바드르에 사막과 가물과 큰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쳐 1만 3 800여명

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모락방송선전을 규탄

쿠바정보 및 체신성이 최근 보도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반쿠바모락방송선전을 규탄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모락방송선전은 쿠바에 위헌적인 것으로 판인하고 보고서는 미국의 라디오방송과 19개 방송국에서 30개의 주파수로 매주 도합 2000여시간의 반쿠바방송을 하고있고 개파하고 쿠바혁명을 승려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계속 확대되고있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쿠바에서의 살인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간첩을 적발

레바논에서 최근 9명의 이스라엘간첩들이 적발되었다.

이 나라 통신은 체포된 간첩들이 이스라엘에 계몽적으로 정보를 넘겨주었다고 밝혔다.

그들중 4명은 이미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5명은 조사를 받고있다 한다.

미군의 살인 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레로》의 미행하여 7일과 8일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에서 난지역 상공에 무인기들을 떨어뜨려 민간인들을 죽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

얼마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아프리카지역에서 문맹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지역의 문맹자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지난 7년간 이 지역에서는 문맹자수가 1 950만명이나 더 늘어나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었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적지 않은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

문맹퇴치사업을 국가적인 교육계획에 넣지 않았고있으며 이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도 매우 제한되어있다.

자료에 의하면 사하라사막이남의 아프리카지역에서는 12개 나라에서만 문맹퇴치가 50%계선을 넘어었다고 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4억 명에 달하는 문맹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총인구의 60%, 세계문맹자총수의 40%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

수 없었던가를 생각하던중 2년반과 계절기를 리용하여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였다. 1938년에 작성된 컴퓨터 《제트1》은 실 나프모로 잘라내어 이어붙인 나무판과 양철조각, 수백개의 전기소위기로 구성되어 불용되는 모양이었던 2년 방법을 사용한 것이 수작품품이었다. 그러나 이 컴퓨터는 한번도 제대로 동작해보지 못한채 미완성품으로 퇴고되었다. 그것은 《제트1》을 완성하는 작업을 한창 하던 중인 1939년에 주체에게 정정명령이 날아왔기때문이다. 당시 주체의 친구들은 이 컴퓨터를 리용하면 지금 보다 훨씬 빨리 항공기와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다고 하면서 과외적으로 히틀러정권을 도와주려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은 《총통이 필요로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

하는것은 전쟁을 기쁨으로 여기고있는 병사들의 사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항공기제작에 동원시켰다고 한다.

그후 주체는 낮에는 비행기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개발을 계속하여 1941년에 진공관 2000여개를 리용한 컴퓨터 《제트3》을 완성하였다. 이때 영국에서라도 암호해독기용이 계속 컴퓨터가 완성되었지만 성능에서는 《제트3》에 비견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3년후에 나온 《마크1》과 5년후에 나온 《에너마크도 《제트3》에 비해 수준이 낮았다고 한다.

1950년대 중반기에 《제트3》수준의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용하고있는 컴퓨터와 같은 구조를 가지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

최근 로씨야와 일본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장본인은 일본이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베프는 새로운 원유 매장지에서 원유개발시작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밀령도를 방문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그러나 일본은 본인이 당국에서라도 일관적으로 우밀령도를 방문할것을 주장하는것은 로일령도라고 하면서 《가까운 시기에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메드베베프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가장 많은 지역

로일령도분쟁 역이다.》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사람들은 쿠릴열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공감하고있다. 그들은 메드베베프대통령이 쿠릴열도방문계획을 포기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은 그들대로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평유권》을 계속 고집하고있다.

지난 4일 비카 내리고 셀바라비 부는 소에 일본인 오기나와 및 《북방동맹》담당상이 일본해안에서 남부쿠릴열도를 관찰하였다. 한 언론은 로씨야의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명유권》주장은 일본당국자들이 그들의 인기를 울릴 필요가 제기될 때마다 쓰곤 하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평하였다.

남부쿠릴열도문제를 둘러싼 로일간의 모순과 충돌은 날로 더욱 심화됨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최학철